

# '순창형 기본사회' 비전 제시

### 최영일 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서 공유

순창군은 지난 29일 코트야드 세중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출범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관계자, 전문가, 연구기관, 10개 시범지역 지자체장이 참석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농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지난 3년간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험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창이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시범하는 실험실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은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500명 규모의 공론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31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와 협업체 모바일형, 체크카드형, 선불카드형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최 군수는 공모 선정 이후 순창군



순창군은 지난 29일 코트야드 세중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가 948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20세에서 49세 인구가 30.7%를 차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순창군이 추진 중인 '모두의 햇빛 펀드'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이 매월 1만 원씩 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생 수익을 주민 배당과 사회서비스로 환원하는 구조다.

군민이 수혜자에서 투자자, 나아가 공동 소유자로 전환되는 선순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 군수는 내년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담양군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내년도 순창군 최대 역점사업이자 순창형 기본사회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순창군과 담양군 유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은 기본소득을 넘어 소득과 돌봄, 일자리, 에너지가 함께 작동하는 농촌 기본사회의 국가 실증 현장이 될 것"이라며 "이 모델이 대한민국 농촌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2026 임실 국사봉 해맞이 행사 개최

임실군이 2026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일출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해맞이 명소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군은 오는 1월 1일 오전 6시 15분부터 임실군 운암면 임서리 소재 국사봉 주차장 일원에서 '2026 임실 국사봉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국사봉은 육정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출렁다리, 봉어섬으로 이어지는 임실 대표 관광지, 매년 새해 첫날 장엄한 일출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 해맞이 명소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난타 공연과 풍물 공연 등 흥겨운 식전 행사를 시작

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놀이와 신년 소망 기원제, 일출 해맞이 감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방문객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해 소망을 적는 소망 부스를 운영하고, 선착순 1,500명에게는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떡국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보건소,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추진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전 보건기관 방문 전담 인력 49명으로 이루어진 방문 건강관리 지원단을 구성, 내년 2월까지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과 대비 집중 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과 대비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 대상 6,000여 명 중 집중 관리 대상을 선별하여 관

리 대상자 명단 확보하고, 한과 센터(541개소) 이용 안내 및 한랭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교육, 한과 대비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한과특보가 발령되면 집중관리 대상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 문자를 통해 인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건강 이상 확인 시 119구급대 및 지역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건강관리를 시행할 예



정이다. 또한, 읍면동 복지팀과 연계해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및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등 복지사각지대 개선에 힘을 모은다. /남원=김기두 기자

## 현장민원 해결 소통행정 실천

###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올해 취약계층 등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

남원시가 시민 불편 살피며 '120민원봉사대'를 통해 2025 찾아가는 현장민원 해결로 소통행정을 몸소 실천하면서 현장행정 신뢰도 향상 및 취약계층의 정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왔다.

민원봉사대의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남원시민의 시민 중심의 최고의 살림 행정으로, 올해는 취약계층 생활격차 완화 등을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민간인과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된 120민원봉사대는 연 150회(300개 마을) 일정을 추진했다.

특히 시장이 직접 분기별로 마을을 찾아가서 시민과 함께 시 현안 등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현장체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빨래방은 총 세탁기 7대와 건조기 1대를 장착한 2.5톤 탑재 2대로 공공근로 2명을 활용해 이동빨래를 수거해오고 세탁 후 배달해주는 맞춤형 이동빨래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민원봉사대는 생활현장투어(자전거 투어 등)를 진행해 신속한 복구와 처리로 민원이 접수되면 30분내로 현장에 도착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비철·겨울철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점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생활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살림행정도 추진,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추진과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찾아가서 시민과 함께 시 현안 등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현장체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취약계층을 발견하거나 독거노인 등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해서 5분을 누르면 바로 생활민원이 접수 처리, 120전화민원은 남원시청 당직실로 자동연결돼 처리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처리현황은 △로드킬 신고(동물사체) △소음이나 악취관련 신고 △불법주정차위반 차량신고 △택시승차거부 신고 △가로등 고장 신고 △상상수요요금 관련 신고 등 다양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농부 구축 완료보고회

남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밸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농부'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드론과 인공지능(AI)기반의 스마트 영농 플랫폼 '농부' 구축 성과를 공유했으며, 사업을 통해 농업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12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특히 조사부 생산관리 분야에서 기술 적용이 두드러졌으며, 드론과 AI 기술을 통해 행정업무

처리 시간을 기존 대비 약 70% 줄였고, 농가 보조금 정산 정확도가 높아져 약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보고회에는 남원시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관련부서, 사업수행기관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결과와 농부 플랫폼 시연, 질의응답 및 실무자 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 참석자들은 농부가 실제 행정업무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성과

순창군이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시설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9명을 대상으로 총 9개 동, 1만6544㎡ 규모의 시설 온실을 임대한 결과, 연간 총매출액 약 4억

4900만 원, 농가 순수소득 2억34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최신 시설을 운영하며 재배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내년에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군비 5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농기센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2026년 한 해를 준비하는 농업인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6년 1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전문작목과 찾아가는 읍면별 교육으로 구성, 목교육은 사과, 포도(캄벨), 토마토, 무, 양파, 배, 복숭아, 딸기, 블루베리 등 총 9개 작목으로 구성되며 총 11회에 걸쳐 진행,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작목도 2회 이상 진행 시 교육 내용을 다르게 편성해 농업인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킨다.

찾아가는 읍면별 교육은 총 17회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진드기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주제로 다루고, 농업 현장에도 적용되는 종대재해처벌법과 저탄소 농업 실천 기술을 안내하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2026년 교육과 기술보급 사업을 홍보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교육정책 간담회 가져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효선)은 지난 29일 임실생태누리에서 학부모·교원·도교육청·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 찾아가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지역 학생이 동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결정자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와 모델로 운영 중인 '임실 에듀라이딩'을 주제로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 임실교육지원청 관계자, 외부 참석자 7명 등 총 14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에듀라이딩 이용 현황과 학생·학부모의 체감 효과, 개선 필요 사항 등을 공유하며 정책 보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